

마스크 부분해제 첫날 1만 9629명 확진

설 연휴였던 1주 전보다는 7379명 늘어나 위중증 387명, 75일 만에 최소...사망 24명

실내마스크 부분해제 첫 날인 지난 1월 30일 전국에서 1만962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300명대로 떨어져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월 3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만9629명 늘어 누적 3017만 6646명이 됐다.

이는 전날 7416명 대비 1만2213명, 1주 전 설 연휴였던 지난 24일(1만 2250명)보다 7379명 각각 늘어난 규모다. 국내 발생 사례는 1만9598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7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696명, 경기 4737명, 인천 1131명 등 수도권에서 48.7%인 956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58명(51.2%)

의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 1611명, 대구 927명, 광주 517명, 대전 549명, 울산 531명, 세종 163명, 강원 490명, 충북 609명, 충남 843명, 전북 733명, 전남 668명, 경북 875명, 경남 1356명, 제주 186명 등이다.

전날 중국에서 입국 후 확진된 사람은 14명으로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중 45.2%를 차지했다. 이는 공항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입국 후 1일 이내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은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

전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는 1389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316명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결과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일일 양성률은 0.9%로 가장 낮았다.

지난 2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공항에서 PCR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의 누적 양성률은 9.5%(750

명)다. 누적 양성률은 지난 5월 0시 기준 최고 26.1%로 나타났으나 5일부터 출발 전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감소하고 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5명 감소한 387명으로 지난해 11월 17일(365명) 이후 75일 만에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고령층은 340명(87.9%)이다. 신규 입원 환자 수는 72명으로 전날보다 31명 늘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23%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중환자 병상은 1565개 중 1205개가 남아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증상 1565개 중 163개(10.4%)가 사용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4명 늘어 누적 3만3444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21명(87.5%)으로 30대 2명과 50대 1명도 추가로 숨졌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뜻하는 치명률은 0.11%를 유지했다.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에는 전날 2만3156명이 참여했다. 전체 인구(2022년 12월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등록인구 기준) 대비 접종률은

13% 수준이다. 대상자 대비 접종률을 살펴보면 12세 이상 15%, 18세 이상 성인 15.4%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접종률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은 34.9%, 감염취약시설 62.6%, 면역저하자 29.8% 수준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0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국내 마스크 전면 해제와 확진자 '7일 격리의무' 단축 논의도 다음 회의가 예정된 3개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과 격리의무 단축 논의를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시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 조정 관련 논의 시점에 대해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심각 단계인) 위기 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광주시선관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1월 26일 상임위원, 사무처장 및 5개 구 선관위 사무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 동부소방, 겨울철 공사장 화재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예방

광주 동부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 주의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강진소방, 전기화재 저감 '트래킹 클리너' 운영

강진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전기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트래킹 클리너'를 운영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소방, 다중밀집장소 화재예방 및 대피방법 홍보

장흥소방서는 '1·19 불조심 재가조의 날'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밀집장소에서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한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담양소방,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담양소방서는 지난 1월 30일 구조, 구급 등의 경력을 가진 특채 3명과 공채 5명 등 8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임용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완도소방, 펜션 등 숙박시설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

완도소방서는 겨울철 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노린 '깡통 전세' 사기 조직 100여명 대거 적발

총 113명 검거...건설업자 등 5명 구속 임차인 152명 속여, 총 피해액 361억원 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명의 떠넘기기 수법

노숙자·신용불량자 등에 빌라 소유 명의를 떠넘기는 신종 '깡통 전세' 사기 수법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150여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월 31일 사기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 113명을 검거, 이 중 A(40대)씨 등 건설업자 2명과 모집 조직원 2명, 유통조직원 1명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바지사장 모집·유통조직 및 건설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바지사장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 152채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차보증금 36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하도인 공사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한 이후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 몰래 속칭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 대의 사례비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바지사장을 모집한 일당은 부산역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 접근해 '빌라의 명의를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위임장, 인감 등을 넘겨받아 이를 전세사기 조직에 1명당 1500만원을 받고 처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건설업자 A(40대)씨는 2021년 4월 서울의 한 빌라가 3억 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자 소유주 B씨에게 접근해 "전세를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 금액 올려 전세를 놓을테니 보증금을 받고서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빌라 전세보증금을 4억3700만원으로 높인 뒤 '임차인을 구해주면 수수료 1000만원을 준다'고 광고해 부동산 관계자를 통해 임차인 C씨와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 유통조직으로부터 500만원에 바지사장을 구해 보증금 잔금지급 당일 빌라 명의를 떠넘기고 소유자 B씨로부터 약속한 사례금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빌라 임대인에 대해 "고의성 입증 미흡"이라며 "다만 임대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임차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법원에서 명의를 제 공한 노숙자와 신용불량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이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해 악성 임대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152명 대부분이 20~40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이며, 피해액은 총 3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안심시키고, 이사회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한다면 전세·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깡통전세' 수법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멀미약 수급 불안정 언제까지?

멀미약이 진열돼 있다.

멀미약이 원료 수급의 불안정과 코로나 유행 이후 수요가 많은 감기약 등의 생산 집중으로 생산이 줄며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

목포시 상동 상가건물 불...인명피해 없어

목포 상가 건물 내 가정집에서 불이 나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1월 31일 목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9분 목포시 상동의 상

가 건물 2층 가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거주민 2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불이 난 층 115㎡ 중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거주민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기동채본부

9번 적발에 1차려 구속...상습 음주운전 40대 사전구속영장

수차례 적발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해온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상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0시 8분께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3일에도 각각 혈중알코올 농도 0.122%·0.219%(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까지 누적 6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그해 12월 석방된 이후 면허를 다시 딴 그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적발 당시 가정사를 이유로 신병 처리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뒤 음주운전을 반복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형택기자